

01 교회소식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눠요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으로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는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_ 영적인 사랑 시리즈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영적인 사랑을 이루려면 모든 연단을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선만 행해야 한다.

03 간증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질병을 치료하시고 축복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04 성탄특집

황금, 유랑, 몰락의 영적 의미

다가오는 성탄절, 우리가 주님께 드릴 선물은? 2천여 년 전 동방박사들은 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랑, 몰락을 드렸을까?

만민뉴스

제560호 2012년 12월 9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추운 겨울일수록 나눠야 따뜻해집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행사 이어져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교회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겨우내 먹을 맛있는 김장을 담가 주님 사랑을 나눴다.

여선교회총연합회(회장 조현숙 권사)는 지난 11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제15회 '사

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교회 뒷마당에서 치렀다.

포근한 날씨 속에 여선교회 회원과 봉사자 총 1,000여 명이 정성껏 담긴 김장은 교회 구제 가정과 구로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동

작구 신대방2동 주민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을 통해 1,200여 가구에 전달됐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는 올해로 15년째 됐다.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생활이 어렵거나 객지에서 혼자 생활하는 성도들, 그

리고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들을 돌아보며 작은 섬김으로나마 주님 사랑을 전하고자 시작했다.

여선교회총연합회 부회장 권하선 권사는 "추운 겨울에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행복을 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분들이 김장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김치 맛도 아주 좋다고 말씀하십니다."라고 했다.

10kg씩 박스 포장된 김장을 전달받은 신대방2동 주민센터 김선배 동장은 "매년 쌀과 손수 담긴 김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이 양식을 받고 행복하게 귀가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밖에도 우리 교회 곳곳에서는 늘 따뜻한 사랑 나눔 행사가 진행된다. 구제위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생활보조비 및 쌀과 밑반찬을 전달하며, 학생들에게는 분기마다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한 경조위원회에서는 수시로 성도들의 장례 절차를 돕고 있으며, 교정복지선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재소자들을 위한 행사를 갖고 있다. 미용인선교회에서는 매월 노인복지 시설 만민복지타운과 무지개뜨는마을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위한 아미용 봉사를 하고 있다.

일본 재난 피해 아동을 위한 '자선 콘서트'



지난 11월 23일, 일본 동경만민교회(담임 최병란 목사) 주최 자선콘서트가 내리마문화음악홀에서 열렸다. 이번 콘서트는 성탄절을 맞아 지난해 3월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가족을 잃은 어린이들을 돕고자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다만민교회(담임 유승

길 목사) 예능팀 소속 '트리니티'팀과 어린이 찬양·위십팀 'MCS17', 연합성가대, 그리고 동경과 나가노현에서 활동하는 프로 성악가들과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니스트, 일본 전통 무용단 '아게하카이와 수화댄스 봉사단체 '베르칸드'가 출연했다.

동경 수카나미구 사회복지협의회, 나가노현 이다 시 사회복지협의회와 기업체 등에서 이번 행사를 후원했다. 수익금은 피해가 컸던 미야기현 계센누마 시 소재 아사히가오카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들에게 쓰인다.

말레이시아 만민출판사 '북 페스티벌'

지난 12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말레이시아 만민출판사(사장 정드보라)는 중부 사라왁 주 최대 쇼핑몰 스타 메가 몰에서 '성탄절 맞이 북 페스티벌'을 열었다.

중국어·영어·말레이어판 등을 비롯한 우리 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다국어 번역 도서가 전시됐다. 더불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일부

를 3D로 제작한 '목자의 성', 우리 교회 부활절 기념 공연 및 교회 창립 30주년 축하 공연 DVD를 상영해 관람객들과 함께 행복과 기쁨을 나눴다.



말레이시아 만민출판사에서 발간된 이재록 목사 저서는 쿠알라룸푸르의 신생문화유한공사, 미리 지역의 벵카이 엔터프라이즈, 시부 지역의 만민서점 등을 통해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4~7)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영적인 사랑의 속성 중에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은 사랑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믿는다’는 말은 어떤 영혼이든 모든 것을 신뢰하고 믿어 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바란다’는 말은 믿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 가운데 소망을 두고 바라봄으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참음으로 또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랑의 속성 중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는 항목에 담긴 영적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영적인 사랑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을까요?

1.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란?

영적인 사랑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참다 보면 그에 따른 여과가 오기 마련입니다. 큰 물결이 지나가면 그 뒤에 잔물결이 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참을 때에도 참음으로 끝나지 않고 시험이 오거나 마음에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39에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상대가 뺨을 때려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잠잠히 참지요. 그러나 그에 따르는 마음의 아픔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때 저마다 마음이 아픈 이유도 다르지요. 억울하게 맞았다고 마음이 쓰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를 화나게 한 것이 민망해서 마음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하는 형제를 보니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참음의 여과는 외부적인 환경으로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오른뺨을 때릴 때 참고 왼편을 돌려냈는데 사정없이 왼뺨까지 때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참았는데 상황이 더 나빠진 것처럼 보이지요. 하나님 뜻대로 사랑에 위배된 것을 참았으니 곧바로 시험이 물러가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연단이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축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농작물이 비, 바람, 따가운 햇살을 견뎌서 실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참고 견디는 시간을 통해 알곡으로 맺히지요. 이처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인간 경작의 섭리입니다. 영적인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전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볼 때 길으로는 참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보기 싫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아는 원수 마귀 사단이 송사하면 연단이 따르게 되지요.

마음에 악이 없다고 인정받기까지는 크든 작든 연단이라는 테스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악이 전혀 없다 해도 연단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에 악이 없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 온전한 선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지요.

개인적인 축복을 주실 때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에도 이런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의가 충족돼야 합니다. 큰 믿음과 사랑의 행함으로 응답받을 만한 그릇임을 증명해야 원수 마귀 사단이 송사하

지 못하지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시련의 비바람을 견디게 하십니다. 이때 오직 선과 사랑으로 인내하면 결국 승리해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2.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면 어떤 연단이든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견뎌야 할까요?

1) 연단 중에도 하나님 사랑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연단을 허락하십니다(벧전 1:7).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애매히 고난받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허락하신 연단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연단 기간이 길어지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사랑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에 더 좋은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지요. 이처럼 하나님 사랑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 결국 온전한 사람으로 나오는 축복을 받습니다(약 1:4).

2)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5:3-4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말씀한 대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때로 자신을 볼 때 ‘어느 세월에 변화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연마 끝에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것처럼 연단을 잘 견뎌므로 변화되고 또 변화되면 결국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연단을 통과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쉬운 길로 가기 원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지만 연단을 피해 가면 그만큼 더디게 되지요. 주위에 사사건건 트집 잡는 사람이 있을 때 싫은 내색은 하지 않지만 불편해집니다. 이때도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인내하며 상대를 진정 이해하고 용서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변화되도록 이끄시지요. 이처럼 연단의 상황 하나하나가 소망을 이루는 징검다리가 되고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3) 모든 것을 견디려면 오직 선만 행해야 합니다

보통 시험 환난은 사람이나 환경으로 인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믿음의 시련은 원수 마귀 사단이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곧 시험 환난은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결국 선이 승리한다는 영계의 법칙대로 싸워야 합니다. 선을 행하면 당장에는 지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21) 하신 대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선에 속하시기 때문에 선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 안하무인이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더욱 중심에서 선을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참 사랑을 이루면 견디기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 하신 대로 상대를 자신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주조개는 모래알, 해초 등 이물질이 들어오면 오히려 그것으로 진주를 만들어 냅니다. 이처럼 사랑을 위해 참을 때 오는 아픔을 믿음과 소망으로 잘 견뎌서 ‘영적인 사랑’이라는 진주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기까지 우리를 바라봐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 주심에 감사하나다.” 감동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야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성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공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열렬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자유를 안겨준 남한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천국이 따로 없네요”

오향기 집사 (가명, 주사랑선교회)

저는 2006년 6월, 우여곡절 끝에 북한 국경을 넘어 중국, 태국을 거쳐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무사히 자유의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은혜였지요. 이처럼 대한민국에 온 뒤 정부 지원으로 별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고 사교성이 좋아 적응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2008년 6월, 새터민(탈북자 이주민) 남편과 재혼한 뒤 큰 삶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친구 전도로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한 일입니다. 등록할 때 새신자 선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받았습니니다. 집에 돌아와 단숨에 읽은 저는 큰 감동을 받았지요.

그 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 『지옥』 등 당회장님 저서들을 읽으면서 요점 정리를 했습니다. 설교 말씀과 저서를 통해 몰랐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니 하나님 사랑이 절실히 느껴졌고, 믿음도 성장하니 신앙생활이 행복했습니다. 특히 새터민들로 구성된 ‘주사랑선교회’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새터민들을 위해 지원해 주시는 당회장님의 사랑과 배려는 각별했지요.

저는 예전부터 눈이 까칠하고 통증과 함께 충혈이 잦으며 눈곱이 끼어서 안경을 착용하고도 시력

이 좋지 않았습니다. 진단 결과 노년성 백내장으로 판명됐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요. 하지만 저는 당회장님께서 인도하시는 ‘특별 은사집회’ 시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2011년 6월 10일, 드디어 집회 시 당회장님께서 제 눈에 손을 대시자 뜨거운 빛이 번쩍하며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랍게도 아주 희미해 답답하게 보이던 눈이 그 즉시 환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양안 시력이 1.0으로 회복돼 70세 고령임에도 안경 없이 바늘귀에 실을 꿰며, 깨알 같은 글씨도 잘 읽습니다. 그날 감사하게도 무릎 관절 수술 후유증과 고혈압까지 치료받았지요.

저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충성의 기록장’을 만들어 하나하나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일을 찾아 행하게 됐지요. 올해 7월부터는 매주 ‘만민뉴스’를 1,500부 가량 배포하며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 사랑 안에 참 자유를 얻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파스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공 초월한 기도로 질병을 치료받고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베에르 블라 성도 (벨기에 에노만민교회)

저와 아내는 40년간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서 나름대로 충성한다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가졌지요. 하지만 에노만민교회(담임 노현숙 선교사)에 출석한 뒤 모든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최근에는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십자가의 도』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밝히 알 수 있었지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깨우치니 더욱 믿음이 됐습니다.

저는 두 차례의 심장 수술과 폐 기능 저하로 24시간 산소 호흡기를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당뇨와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아 매일 조석(朝夕)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만 했지요. 지난 11월 16일, 서울 만민중앙교회에 인터넷으로 기도를 요청해 금요일아침에 새 이재록 목사님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받았습니니다.

그 후 놀랍게도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당혈색소가 8.0에서 6.1로 크게 호전됐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됐지요. 혈액 상태도 20대처럼 맑고 깨끗했으며, 폐 기능 또한 정상이었습니다. 영육 간에 축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라서 행복한 2대대 17교구 4지역!”



이순애 권사 (2대대 17교구 4지역장)

저희 지역에는 아빠는 지체장애 6급, 엄마는 정신지체장애 2급, 딸은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족은 글자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서 지역 일꾼들이 휴대폰 문자 관리, 민원 업무 등에 도움을 줍니다.

내 일처럼 서로 돌아가며 집안 청소부터 시작해 반찬 등 음식 준비도 해 주고 목욕탕에 함께 가며 머리 손질과 염색도 도와주지요. 주님의 소중한 영혼이라 생각하니 귀하고, 그분들을 섬길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이 가정을 갈무리하면서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구역예배가 있을 때 “청소해 놓으세요.”, “양치하고 계세요.”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에서 ‘나는 어떨까?’ 하며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한번은 교회 버스 안에서 양치하기, 속옷 갈아입기, 머리 감기 등 한꺼번에 5~6가지를 말했더니, “미워.” 하고 내리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집에 가보니 다 해놓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해 줘야 했는데 마음을 무겁게 했겠구나.’ 하며 저를

돌아보는 시간도 있었지요. 어느새 주변에서는 그분들의 달라진 모습에 행복해합니다. 예전보다 알아서 잘 준비하고, 세 식구가 밤마다 열리는 다니엘철야 기도회에도 참석하지요. 뿐만 아니라 매주 ‘만민뉴스’도 1,000부씩 접어다 쥐서 지역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 저희 지역 식구들은 더욱 하나 됐고, 눈물 흘릴 일도 웃을 일도 더 많아졌습니다. 나눌수록 행복한 사랑을 깨우쳐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교구장님과 조장님들, 구역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사창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룡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무진상가 20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만민교회 경남 말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심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군산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7487-171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



주님께 드리는 값진 선물

2천여 년 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심으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하나님 자녀로서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값진 선물을 주신 것이다.

성탄절을 맞아 구원과 영생, 천국 소망을 주신 주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까?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기 위해 별을 보고 찾아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택해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온 인류를 대표해 경배하게 하신 것이다.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을 앞두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영적 의미를 깨달아 주님께 참된 선물을 준비해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황금_ '마음'

황금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귀금속 중의 하나로서 부와 재물을 상징한다. 마태복음 6:21에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다. 황금을 예물로 드린다는 말은 우리 마음을 드린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뜻한다.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생명 그 이상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마가복음 12:41~44을 보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가난한 과부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 이 여인은 구차한 중에 두 렵돈(그리스에서 쓰인 가장 작은 화폐 단위)밖에 안 되는 적은 돈을 연보궤에 넣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공궤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먹을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었으니 이 양식은 가족의 생명줄과 같았다. 하지만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셨다. 그 결과,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셨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전부를 드리는 일, 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우며 황금을 예물로 드리는 마음이다.

유향_ '그리스도의 향기'

유향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서 화제(火祭)나 소제(素祭)의 분향제로 사용되었으며, 레위인 중에는 유향을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었다. 6~8월 줄기나 가지에 상처를 내어 수지(樹皮)를 채취하는데, 유백색의 수지가 몽글몽글 나와 젖처럼 맷히므로 유향(乳香)이라 불린다. 흘러나온 수지는 방울로 맺혀 처음에는 고무처럼 말랑말랑하고 연한 노란색 또는 연한 녹색의 투명체이다가 서서히 흰색, 황색 순으로 굳어진다(세계기독교박물관 www.segibak.or.kr 참조).

유향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며 악취를 제거하는 물품으로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상징한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모습이 바로 주님 앞에 유향을 드리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다(요삼 2절).

하나님께서 우리 행함을 보실 뿐 아니라 중심을 감찰하시므로 무엇보다 마음의 향기를 흠향하신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벗어 버리기 위해 힘쓸 것이다. 따라서 유향을 예물로 드림과 같이 마음의 할례를 이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뿐 아니라 생명이라도 아까워하지 않을 중심이다.

몰약_ '변함없는 믿음'

몰약은 향료나 방부제로 사용된다. 고대 귀부인들은 향낭(香囊)을 만들어 목걸이 추처럼 달고 다녔으며(아 1:13), 페르시아 왕들은 왕관 속에 넣어 강장제로도 사용했다. 몰약 나무는 굵고 단단한 관목(灌木)이며, 수피(樹皮)가 일어나므로 짙은 녹색의 줄기와 흰 점들을 볼 수 있다. 목재와 수피에서 향기가 나며, 껍질에 상처를 내면 수액(樹液)이 분비된다. 처음에는 말랑한 흰색이지만 점차 노란빛을 띤 갈색으로 변하다가 송진처럼 굳어진다(세계기독교박물관 www.segibak.or.kr 참조).

방부제 역할을 하는 몰약을 예물로 드린다는 말은 영적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변함없이 주님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이처럼 변함없는 마음이 되려면 먼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유익을 좇아 변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되 마음의 할례를 통해 비진리를 벗어 버리고 진리로 채워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

2010년 12월 25일, 만민의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급속한 영의 흐름 가운데 마음 안에 있는 근본 악의 뿌리까지 벗어 버리도록 깨닫게 해 주셔서 많은 성도가 구원은 물론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그날 이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은 우리에게 더욱 뜻깊고 행복한 날이 됐다. 값진 선물을 받은 우리는 다가오는 성탄절에 주님께 참된 선물을 드림으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12 December

- 이재복 목사의 '생명의 말씀'
 - 3차 영혼육 14
 -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 1-4
 - 십계명 7-10 / 천국 46-50
 - 예수 그리스도 (2011 성탄절 말함)
 - 천세기 강해 59-63
- GCN TV설교
 - 육과영 10-13 - 이수진 목사
 - 성령의 역사 (4) - 신동초 목사
 - 내진이 넘치니이다 - 정구영 목사
 - [GCN TV특강] 일곱교회 1-5 - 빈금선 권사
- 찬양 프로그램
 - GCN 파워프레지즈(2) 8-12
 - 찬양과 경배(3) - 성탄특집
- 특별 생방송
 - 성탄 트리 점등식
- GCN 특선명화
 - 예수
 - 퀴바디스 1부/2부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A/S 문의 1577-2073